

맥체인 성경읽기 8.23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

1-2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 나를 보내시고 왕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

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4-5 사울은 들라임에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에서 군사 이백 개 부대와 유다에서 따로 열 개 부대를 뽑아 출정 준비를 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을 향해 진군하여 계곡에 매복했다.

6 사울은 겐 사람에게 전갈을 보냈다.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서 나오시오. 지금 당장 성읍에서 대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친절을 베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오.”

겐 사람은 그의 경고대로 그곳에서 대피했다.

7-9 그러자 사울은 계곡에서부터 멀리 이집트
경계 근처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다. 다
른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었
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
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 두었다. 그것들에는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외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저
주의 규정대로 죽었다.

10-11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11-12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사무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는 사울이 이미 제사를 마친 뒤였다. 그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13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이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14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15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군사들이 가장 좋은 소와 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다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했습니다.”

16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19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며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 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섯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20-21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잡아 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 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22-23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24-25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

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6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27-29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 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30 사울이 다시 만류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31 사무엘은 그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돌아갔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32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아각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중얼거리며 끌려 나왔다.

33 사무엘이 말했다. “네 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네 어미도 그 여인들과 같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곳 길갈,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칼

로 베었다.

34-35 사무엘은 바로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1-3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3-5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 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6-7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

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8-10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빛 말고는 더는 빛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은 “하지 말라”는 -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 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11-14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해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에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

니다. 우리는 일 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예레미야 52장 예루살렘의 멸망

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립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2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3-5 예루살렘과 유다가 맞게 된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그는 시드기야 구년 열째 달에 예루

살렘에 도착했고, 성은 열아홉 달 동안(시드기야 십일 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6-8 시드기야 십일 년 넷째 달 구일이 되자, 기근이 너무 심해져 성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때에 바빌론이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것을 본 유다의 모든 군대는 야음을 틈타 성벽 통로(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로 도망쳤다.

그들은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 강으로 향했다. 바빌론 군사들이 총력을 다해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시

드기 야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9-11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
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
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빌론 왕은 유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

했다.

12-1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십구년 다섯째 달 칠일에, 바빌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만을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17-19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기둥과 청동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바다)를 깨뜨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예비용 청동기구들과 성전 예배에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20-23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바다를 떠받치는 열두 청동 황소와 열 개의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 미터였고, 둘레가 5.4 미터였다. 기둥들은 속이 비었고, 청동의 두께

는 3 센티미터가 조금 못 되었다. 각 기둥에는 청동 석류와 금줄세공으로 장식한 2.25 미터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혀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아흔여섯 개의 석류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하나의 기둥에 백 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다.

24-27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관리 세 명, 남아 있던 군 최고지휘관, 성에 남아 있던 왕의 고문 일곱 명, 군 최고 모병지휘관, 그리고 성에 남아 있던 백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예순 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

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28 느부갓네살 칠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29 느부갓네살 십팔년에, 832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잡혀갔다.

30 느부갓네살 이십삼년에, 745명의 유다 백

성이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잡혀 갔다.

이렇게 해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31-34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는 지 삼십칠 년째 되던 해에, 에월므로닥이 바빌론의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열두째 달 이십오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날부터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1-2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나를 못 본 체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3-5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 주소서.
숨겨진 덮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께로 숨어들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6-13 내가 이 어리석은 종교 놀음을 미워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경중경중 뛰어 노래하니,
주께서 내 아픔 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손아귀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 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 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 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무덤 속 시체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걸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14-18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맡기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미소로 녹여 주시고

나를 아끼시니 구원해 주소서.

주께 여러 번 기별을 드렸으니

찾아오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악인들이나 난처하게, 허탕 치게 하셔서

저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조롱과 야유로 놀려 대는

시끄러운 거짓말쟁이들,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19-22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더미,
고약한 세상을 피해
주께로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주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 그치지 않으니
조롱하는 저 번드르르한 얼굴들을
퇴짜 놓으시고
지독한 험담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 공격에 갇힌 이 몸,

더럭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 밖에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23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가까이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나,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갚으신다.

24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